

보험 가입률 저-고소득층 최대 30% 차이

지난해 저소득 가구와 다른 계층 간 보험 가입률이 10~30%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원이 지난해 4~5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미만) 가구의 63.6%가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중소득(연소득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가구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90.9%, 고소득(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는 95.2%로 조사됐다.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각각 27.3%포인트, 31.6%포인트 높은 것이다.

가구 소득별 가입률은 생명보험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계층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보험연구원, 손해보험 설문 조사

저소득 64%, 고소득 95% 가입

“취약계층 정부 공적 역할 필요”

중소득 가구(85.8%), 고소득 가구(91.9%)보다는 가입률이 각각 12.9%포인트, 19%포인트 떨어졌다. 저소득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층이 손해보험 상품인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낮고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중소득층, 고소득층보다 적어 추가로 보험에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며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가입 제도로는 미소금융재단이 시행하는 소액 보험 사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보험은 미소금융재단이 은행, 보험사의 휴면 예금을 출연받아 기금을 조성, 저소득층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미소금융재단이 보험료를 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기금을 출연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여서 보험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소금융재단이 지원한 보험 건수는 2만572건에 불과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은 시장에만 맡겨두면 안 되고 정부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에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메르스·엔저 등 악재에 글로벌 변동성 확대 전망 수출주 선별적 투자 필요

국내주식시장은 대내외 변수 때문에 경고등이 켜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엔저(엔화 가치 하락)로 인한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전망으로 코스피는 2100선을 힘없이 내주며 불안한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6월을 시작하면서 국내주식시장을 흔드는 북풍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메르스가 확산 추세를 보이자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관광객(유커) 감소에 따른 내수 경기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메르스 환자 규모와 사망자수가 늘어나면 과거 사스(SARS), 신종인플루엔자 사태처럼 해당 국가에서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엔저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엔·달러 환율은 2002년 12월 이후 약 12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125엔을 돌파하고 원·엔 환율이 890원을 중심으로 횡보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담이 부각되면서 전기, 전자, 자동차 업종의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엔화 약세 기조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기대감 등이 작용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엔·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주식시장에 또다른 변수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지연과 11일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이다. 경기부진과 메르스 영향으로 국내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기간 완화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금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는 해외주식시장에 비해 여전히 저평가되어 가격 메리트가 있다. 최근 불확실한 시장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 속도와 대외변수에 따른 투자 심리를 면밀히 판단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겠다. 특히 엔저 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해 수출주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수출주에서는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으로 일본과의 수출 우위에 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과 원·엔 환율의 민감도가 제한적인 중소형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국내증시가 15일부터 하루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 시행된다는 점에서 제한폭 확대 이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실적이 부진한 종목 및 과도한 신용 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외국인이 총수와 계열사 등 관계인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삼성그룹이 18개 상장사 중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0대 그룹 상장사 17% 외국인 지분 많아 경영권 위협

삼성 18곳중 6곳, 현대 11곳중 3곳

재벌닷컴, 96곳 상장사 지분 분석

10대 그룹 상장사 5곳 중 1곳꼴로 외국인 보유 지분이 총수 일가족과 계열사 등 우호 지분을 웃돌아 경영권 공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그룹은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의 총수 우호지분이 취약해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일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96개 상장사의 지분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현재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총수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보통주 기준)을 웃도는 기업이 16개사에 달했다. 전체의 17% 수준이다. 그룹별로 보면 외국인이 총수와 계열사 등 관계인보다 많은 지분을 보유

한 상장사는 삼성그룹이 18개 상장사 중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그룹이 11개사 중 3곳, LG그룹이 12개사 중 3곳, SK그룹이 18개사 중 3곳, GS그룹이 8개사 중 1곳 등이었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총수와 계열사 등 관계인 보유 지분율을 웃도는 재벌그룹 계열사는 그룹 지배구조나 사업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곳이 대다수였다.

우선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견희 회장 일가족과 계열사 등 총수 우호지분이 29.57%이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은 51.82%에 달하는 상황이다.

SK와 롯데쇼핑, 두산 등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은 총수 일가족 및 우호지분이 50%를 넘고 외국인 지분율은 10~20%에 불과한 수준이며 GS와 대한항공, 한화 등도 우호지분이 절반 수준에 달한다.

/연합뉴스

미래에셋, '10년후 퇴직연금시장 5가지 트렌드' 제시

① 퇴직연금 4배로 커진다

- ② 중기 적립금 290%로
- ③ 확정기여형 중심 이동
- ④ 투자상품 30%로 증가
- ⑤ 개인형 IRP 21% 차지

고령화와 저금리, 저성장 등의 환경 속에 향후 10년간 퇴직연금 시장이 4배로 불어나고 확정기여(DC)형의 퇴직연금이 9배 가까이 늘어나 확정급여(DB)형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은퇴 리포트 19호'에서 앞으로 10년간 달라질 '퇴직연금시장의 5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첫째 트렌드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작년 말 107조원에서 2024년 430조원으로 10년 만에 4배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에서 2024년 22%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률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지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2024년 적립금은 70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의무 가입으로 작년 51조원에서 2024년 199조원으로 29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작년 16%에서 2024년에 5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셋째, 퇴직연금 중심축이 DC형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등의 도입으로 2019년께 DC형 규모가 DB형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DC형(IRP 포함) 적립금은 작년 31조원에서 2024년 275조원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나고, DB형은 76조원에서 155조원으로 10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넷째,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투자상품의 비중이 작년 6%에서 2024년 3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DB형은 적립금 중 투자상품 비중이 작년 1%(1조원)에서 2024년 12%(19조원)로 높아지고 DC형과 IRP는 16%(5조원)에서 41%(114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DC형과 IRP의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개인형IRP는 작년 8조원에서 2024년 90조원으로 증가해 전체 적립금 중 21%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근로자의 IRP 추가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55세에 도달하는 상용근로자는 10년간 210만명으로 늘어나 적립과 인출 등의 토털솔루션(Total Solution)의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퇴직연금이 빠진 노후준비를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게 필수임을 인식하고 맞는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교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종	비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

투데이 경매

담양군 대덕면 광주~20분 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건물 대형차 진출입여건 좋음
대지 18234㎡ 건물 3672㎡
감정가 14억9천
최저가 6억4천

운암동 대단리아파트단지 공실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환원,PC방,독서실,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신가동 신가IC인근 주유소 하남대로변 통행량 매우많은 국유지1300㎡포함 사용중
대지1422㎡ 건물559㎡
감정가15억7천
최저가11억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폐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